

뉴욕 최대 예술지원 기부자, 볼름버그 시장
Back Stage, July 13, 2005

뉴욕의 108번째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마이클 볼름버그 시장은 매년 천만불 단위의 자선기부금을 뉴욕 시 일원의 예술단체와 사회사업단체 지원을 조건으로 비영리단체인 카네기 재단에 기부해왔다. 이는 모두 익명으로 이뤄졌지만, 기부자의 신원이 뉴욕 시장 볼름버그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그의 정치적 홍보에 특이 되고 있다.

취임한 첫 두해 에는 각각 1천만 달러를, 2004년도에는 50% 증가한 1천 5백만 달러, 그리고 재선을 향해 뛰고 있는 올해에는 2천만 달러를 기부했다. 이로써 볼름버그는 총 5천 5백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이는 그가 시장 선거 캠페인에 사용했던 7천만 달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 기부금으로 뉴욕시의 229개 문화예술단체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는 서양 영화들
The New York Times, July 9, 2005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중국의 미술대학들은 매년 수만 명의 숙련되고 저임금을 감수할 수 있는 예술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이들이 조립품처럼 복제된 미술품들을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작가들은 그림엽서나 인터넷에 실린 이미지를 혹은 유명작가들의 화집을 보고, 그들의 작품을 정밀하게 복제하여 500달러 미만에 판매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04도 중국산 미술품 수입은 1996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금액으로는 3천만 달러를 넘고 있다.

뉴욕에 뿌리 내린 아동순회극단
The New York Times, July 8, 2005

미국 연극사상 가장 긴 순회공연을 한 어린이극단이 드디어 뉴욕에 동지를 틀었다. 1961년 설립된 어린이 순회극단 씨어터웍스 유에스에이(Theaterworks/USA)는 지금까지 1,320여 곳의 도시와 마을 등에서 공연해 왔으며 한번에 14개의 소를 공연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 사본 크리치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두 개의 달을 걷다(Walk Two Moons)』로 첫 무대를 장식한다. 이들이 순회공연과 다른 점은 통상 60분이던 공연 시간이 90분으로 늘어난 것과 순회공연에서는 무료이거나 7달러 이내 이던 관람료가 35달러로 증가된 것이다. 이밖에 극단 측은 2005 - 2006 시즌 동안 3개의 장기공연과 어린이 관객들을 위한 특별 음악 프로그램, 인형극, 미술 쇼 등을 기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순회공연에서 보여준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격에서 탈피하여 예술적 창의성을 기미하고자 하는 것도 이들이 추구하는 변화이다.

러시아 발레의 살아있는 전설, 올리아나 로파키나
Telegraph, July 9, 2005

키로프발레단의 예술감독 올렉 비노그라도프는 실비 길렐에 매료되어 그녀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큰 키의 발레리나들을 몰색했다. 그리하여 작고 섬세한 미모의 발레리나들이 주목받았던 러시아 발레계에 카타리나 올리아나 로파키나가 새로운 프리마돈나로 떠오르게 되었다. 조각 같은 미모의 아나스타샤 볼로초바, 인형처럼 아름다운 다이아나 비세네바 등과 비교하면 수수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그녀지만 1995

년 키로프발레단의 프리마돈나로 런던을 방문하여 공연한 '백조의 호수'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그녀의 레퍼토리가 지난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리아나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자신의 가슴속에 가장 와 닿고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녀를 아끼는 팬들은 그녀가 31세라는 아직은 젊은 나이에 너무나 한정된 레퍼토리에 경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다.

영적 세계를 불러오는 탄둔의 오페라
The New York Times, June 26, 2005

8년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중국 출신의 이방가르드 작곡가 탄둔에게 위촉한 오페라가 드디어 완성되어 2006년 12월 21일 막을 올리게 된다. '첫번째 황제(The First Emperor)'로 제목이 붙어진 이 작품의 타이틀 롤은 플라시도 도밍고에게 돌아갔다. 당초 이 작품의 지휘자로 제임스 레바인을 위촉했으나 레바인이 보스턴 심포니를 맡게 됨에 따라 탄둔이 자천으로 지휘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작곡가가 자신의 작품을 지휘한다는 것에 긍정적이지 않았던 메트로폴리탄 지휘를 본 후 탄둔이아말로 가장 이상적인 지휘자라 인정했다.

탄둔은 그동안 오페라 '마르코 폴로'로 클래식 작곡계의 가장 권위있는 상인 그라메마이어상을 수상했으며 영화 『와호장룡』의 삽입음악으로 오스카와 그레미상을 받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또한 장예모 감독의 최근 영화 『영웅』의 음악을 썼으며, 진시황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탄둔이 이번 오페라의 전편으로 여기고 곡을 썼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발레로 막 올리는 파리 여름무용제
The New York Times, July 3, 2005

새롭게 시작하는 파리 여름무용제가 샌프란시스코 발레의 신작 3편을 초연으로 3주간에 걸친 축제의 막을 연다. 파리의 문화 중심지가 아닌 근교 마레의 18세기에 세워진 로한 수비즈 호텔의 직사각형 정원에 마련된 2,000석의 야외 무대에서 열릴 이 축제는 지난 20년간 샌프란시스코 발레를 이끌어 온 헬기 토마스의 작품들로만 채워진다. 이 축제는 매년 하나의 무용단이나 안무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계획으로는 프랑스와 중국의 무역협정에 따라 상하이 발레단을 초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3년 아시아에 불어닥친 사스의 영향으로 이 계획은 취소되었고, 미국의 안베르르 재단의 지원으로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을 초청하게 되었다.

베네주엘라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프로그램
The Boston Globe, June 22, 2005

1975년 베네주엘라의 지휘자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층 청소년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1명의 청소년 음악도들과 함께 수도 카라카스의 허름한 창공에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적게는 2살부터, 혹은 시각, 청각 등 장애아들을 포함하여 24만 명의 청소년들이 전국의 교향악단과 합창단에서 수업과 연주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수백명은 외국 순회공연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모든 정권이 이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으로 지원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22개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 연평균 소득이 3,490달러에 불과한 인구 2,500만의 베네주엘라, 매년 이 프로그램에 2,900만 달러가 지원된다.

관람료 할인으로 관객 모으는 오프브로드웨이
The New York Times, June 23, 2005

한 시즌동안 한 작가의 작품만을 올리는 것으로 잘 알려진 오프브로드웨이의 시그니처극단은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어거스트 윌슨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면서 모든 좌석은 15달러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타임워너사의 시그니처극단에 대한 3년간에 걸친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5달러는 영화 티켓과 음료 한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오프브로드웨이의 통상적인 50달러 이상의 관람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며, 할인 티켓을 제공하고 있는 극장개발기금(Theater Development Fund)의 TKTS부스나 인터넷에서 할인 티켓을 팔고 있는 업체들에게조차도 놀라운 가격이다. 공공 및 민간 지원의 감소에 따라 매년 관람료를 인상해가고 있는 오프브로드웨이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조치는 관람객, 특히 젊은 관객층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술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소리 예술
The Telegraph, June 16, 2005

5년전 영국의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최초로 대규모 소리 예술 그룹 전시회가 개최된 이후 소리 예술 분야는 장족의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미술 장르가 되었다. 대표적인 소리 미술 작가인 부루스 누우만은 영국의 가장 큰 전시공간인 테이트 모던의 터빈 홀에서 소리전시를 가졌으며, 지난 해 빅토리아 알버트 뮤지엄에서의 대규모 소리전과 비비안 센터에서 개최된 소리 예술작가 크리스찬 맥클레이의 전시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사운드 아티스트 빌 폰타나는 테이트 모던 외곽의 템즈강을 가로지르고 있는 밀레니엄 다리의 소리를 녹음하여 흥미로운 소리 예술로 재창조하였다.

가장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 타계
Los Angeles Times, June 15, 2005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향년 91세로 타계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니 지휘자를 역임한 줄리니는 조용한 매너와 고대 스타일의 시적인 음악 만들기 작업을 통해 이 교향악단의 위치를 한 단계 높여놓았다. 50년에 걸친 지휘 경력은 라스칼라 오페라단과 로마, 비엔나,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의 교향악단과 콘서트 홀의 수석 지휘자직을 포함하고 있다. 1984년 6년간의 로스앤젤레스 교향악단 지휘 후 평생동안 서로 헌신적이었던 아내 마르첼라의 병환으로 고향 밀라노로 돌아온 이후 1990년대 후반 심장의 이상으로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밀라노에서 비행기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거리 내에 있는 지역, 즉 이 조건을 충족시킨 런던과 베를린에서만 종종 지휘봉을 잡았다.

서정애 | 본원 국제교류팀 차장